토스증권 인가 눈앞 증권업계 메기 될까

정례회의 통과하면 연내 서비스
젊은층 겨냥 비대면 리테일 주력
리테일 강점 '키움' 경쟁자 거론

/연합뉴스

모바일 금융 플랫폼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100% 자회사인 토스증권의 출범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이후 12만의 새 증권사 등판이지만 증권업계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카카오뱅크가 보인 성장세를 고려하면 기득권을 지키는 증권사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이번 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만 통과하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설립까지 마지막 관문만 남은 셈이다.

올해 32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한 후 80여명의 임직원을 갖춘 토스의 증권사 라이선스 획득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선 토스라는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잠룡(潛龍)의 등장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올해는 거래대금이 늘며 리테일과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이 돋보였지만 기업금융(IB)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강화해왔고 중소형사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며 "토스증권이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토스증권의 직접적 경쟁자는 키움증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많은 이용자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확보한 대형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 때문에 카카오페이증권이랑 많이 비교 되는데 오히려 인터넷과 모바일 특화 증권사라는 정체성 측면에서 키움증권이 가장 견제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키움증권은 금융플랫폼 사업자로서 리테일 부문 지배력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힌다. 토스증권도 1800만명의 토스 가입자를 바탕으로 젊은층을 겨냥한 비대면 리테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의 직접적 경쟁자로 키움증권이 지목된 것도 콘셉트가 겹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젊은 신규 주식투자자에 대한 시장 선점 효과를 고려하면 리테일 비중이 높은 증권사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토스 회원 중 20~30대 비중이 60%에 달한다.

토스증권이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강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토스 관계자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차트 표현 방법과 종목 검색 등 쉽게 풀어 쓴 새로운 MTS를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차별화된 MTS와 지금의 토스 플랫폼만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카카오뱅크 성공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앱 품질도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토스증권이 유저경험(UX)에 강점이 있다 해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압도적인 격차까진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에틸렌 앞세워 3분기 '깜짝 실적' 대산공장 정상화… 내년 더 기대

metro 관심종목

롯데케미칼

코로나 관련 제품 포장재 사용
내년 '에틸렌' 수요 급증 예상
공장 재가동 따른 시황 회복세
증권사 목표주가 최대 40만원

롯데케미칼이 3분기에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했다. 시장 컨센서스의 56%를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 제품으로 꼽히던 '에틸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포장재 수요 급증에 따라 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 증권업계는 롯데케미칼의 목표주가를 최대 40만원까지 내놓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 13일 26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롯데케미칼은 2020년 3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 1938억원, 매출액 3조45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올해 2분기 대비 각각 488.7%, 13.5% 증가한 수치다.

순수 석유화학 업체인 롯데케미칼은 주력 제품 에틸렌을 연간 354만톤 생산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생산능력 1070만톤 가운데 33%에 달하는 규모지만, 적자 제품으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제품의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자 에틸렌 수요가 늘어났다.

〈롯데케미칼 증권사별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하나금융투자·유안타증권	40만원
현대차투자증권·대신증권	35만원
키움증권	34만원
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	33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32만4000원
하이투자증권	32만원
교보증권	30만원
DB금융투자	29만원
유진투자증권	28만원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1년 에틸렌 수요는 전년보다 1500~1800만톤 늘어나 1억70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보다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수요 증가율보다 2.5배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리포트)를 살펴보면 하나금융투자와 유안타증권이 40만원으로 목표주가를 가장 높게 책정했다. 특히 유안타증권의 경우 기존 목표주가 30만원에서 33%나 상향 조정했다. 이어 현대차투자증권·대신증권(35만원), 키움증권(34만원), 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33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32만4000원), 하이투자증권(32만원), 교보증권(30만원), DB금융투자(29만원), 유진투자증권(28만원) 등의 순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코로나19 악재와 대산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역사상 최저점인 주가순자산비율(PBR) 0.4배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진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롯데케미칼의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 PBR 0.60배에 불과하다"며 "내년 화학 수요 회복에 따른 업황 개선과 실적 턴어라운드를 고려했을 때 주가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폭발 사고로 멈췄던 대산 공장도 오는 12월부터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대산 공장은 롯데케미칼 전체 매출의 21.8%를 책임진다. 연간 3조 3000억원 규모다. 대산 공장의 재가동으로 4분기에 빠른 실적 회복세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폭발 공장 재가동에 따른 기저효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력 석유 화학 제품군의 시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0% 이상 크게 회복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증권업계는 롯데케미칼의 4분기 영업이익도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한 2824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LH-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스마트 헬스시티 모델 공동개발 추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 헬스시티 해외진출 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스마트 헬스시티 해외진출 모델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변창흠 LH 사장(오른쪽),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LH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빛난 한국 보건·의료분야의 세계 위상 및 신뢰도 제고에 힘입어,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등 LH가 추진하는 해외 스마트시티에 보건·의료분야가 특화된 스마트 헬스시티를 구현하고 국내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그동안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갖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보건·의료분야 사업 발굴, 계획, 개발 및 유지관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 및 해외조사단 파견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정연우 기자

전국 9곳 5885가구 청약… 수도권 대단지 주목

분양캘린더

'서울양원' 영구임대 청약 등 진행

경기도 화성시 반정아이파크캐슬 조감도

11월 셋째 주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반정 아이파크 캐슬(4·5단지)'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되며, 서울에서는 '서울양원(S1블록)'의 영구임대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1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곳에서 총 5885가구(오피스텔·임대·타운하우스·테라스하우스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이어 견본주택 개관도 7곳이나 준비중이다. 경기 고양시에서 '호반써밋 DMC힐즈'와 경북 경주시에서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등이 본격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10곳, 계약은 25개 사업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KRX,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발표

S&P DJI와 공동으로 개발·선정

한국거래소는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디시즈(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16일 발표한다.

동일 산업군 내에서 기업 매출액과 비교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반대로 많은 기업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 내 편입비중을 결정했다.

S&P 자회사인 트루코스트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ESG리포트 등 국내 기업이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 대비 탄소배출량을 산출했다.

이번 지수는 많은 기업을 저탄소 경제에 동참시키고자 탄소배출량 정보가 있는 기업을 최대한 지수에 편입했다. 그 결과 코스피 260종목, 코스닥 223종목으로 총 483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거래대금 30억원 이상의 유동성과 탄소배출량, 정보공개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선정했다.

거래소가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 지수는 최근 5년간 코스피와의 연평균 상관관계가 0.97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도 코스피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지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